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벼농사

☐ 농사차비

○ 적기에 질적으로 (로동신문 11.21)

- 올해농사를 빨리 결속하고 다음해 농사차비에 힘을 집중해야 함. 농사차비를 잘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리는데 매우 중요함.
- 각지 농촌에서는 논밭갈이와 거름생산, 모판준비, 농기계와 중소농기구준비를 비롯한 농사차비를 실속있게 하여 다음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가을갈이는 당의 물리적 화학성질을 좋게 하며 김과 병해충이 생겨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농사차비의 중요한 공정임. 가을갈이 계획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세우고 전격적으로 추진해야 함.
- 모판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함. 땅이 얼기 전에 모판만들기를 다그치며 모판에 덮을 흙도 충분히 마련해야 함. 바람막이바자와 나래, 말장 등 모판자재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함.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일꾼들은 농사차비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날 계획은 그날로 수행해야 함. 또한 농장, 작업반, 분조들의 농사차비정형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함.

☐ 낟알털기

○ 낟알털기를 마감단계에서 (로동신문 11.15)

- 평안북도의 협동농장에서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낟알털기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실시하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수많은 협동농장에서 낟알털기를 끝냈으며 도안의 대부분의 시, 군에서 낟알털기가 마무리단계에 있음.
-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도송배전부를 비롯한 전력공급단위에서 협동농장에 전기를 제때에 보장해주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였음. 도안의 시, 군 협동농장에서는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가을한 벼단을 탈곡작에 실어들이는 족족 탈곡하여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정주시와 도림, 곽산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낟알털기에 진력하고 있음. 태천, 피현, 의주, 염주, 운전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시, 군에서도 탈곡기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실속있게 하면서 전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낟알털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2. 축 산

▢ 축산동향

○ 두단오리공장의 현대화 (로동신문 11.3)

·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집단이 두단오리공장 현대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음. 교원, 연구사들은 짧은 기간에 모든 생산공정을 현대화, 컴퓨터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

· 발효먹이생산공정이 새롭게 꾸려져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오리배설물로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체계가 확립되고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음.

· 연구집단은 지열로 오리호동의 냉난방을 보장하고 오존에 의한 소독체계를 철저히 세웠음. 또한 알깨우기실을 현대화하여 알깨우기률을 높였으며 자동적으로 먹이의 양과 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혼합될 수 있게 배합먹이생산공정을 개조하였음.

3. 농업기반

▢ 토지정리

○ 3단계 토지정리공사를 끝냈다 (로동신문 11.5)

·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에 동원된 618건설돌격대의 일꾼과 돌격대원들이 3단계 토지정리공사를 두달이나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특히 일꾼과 돌격대원들은 10월 한달동안에만 3단계 토지정리공사의 50%를 완성하여 고산과수농장의 면적을 더욱 늘릴수 있는 전망을 확고히 하였음.

· 618건설현장지휘부에서는 앙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정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조직과 지휘를 짜임새있게 계획하였음. 특히 현장에 내려가 당면 문제들을 알아보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면서 겨울철전으로 공사를 끝내도록 지휘하였음.

· 평안남도려단, 남포시려단, 강원도려단에서는 모두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토지정리를 힘있게 추진하여 공사과제를 기한전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함경북도려단, 황해북도려단을 비롯한 다른 련단에서도 공사를 앞당겨 끝내는데 적극 기여하였음.

○ 미루벌토지정리에 력량을 집중 (로동신문 11.21)

· 황해북도에서 미루벌토지정리사업이 힘있게 실시되고 있음. 사업이 시작된지 한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벌써 수백정보의 토지를 정리하는 성과가 이룩됨.

- 돌격대지휘부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전투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음. 또한 연유와 부속품, 후방물자보장을 확고히 하여 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수안군대대에서는 가을걷이날짜를 포전별로 장악하고 기계설비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토지정리시작부터 기세를 올리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은파군대대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적은 연유를 가지고 더 많은 토지를 정리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수립하여 토지정리실적을 올리고 있음.

4. 산림

▢ 통나무 생산

○ 년간계획수행단위가 늘어난다 (로동신문 11.17)

- 올해 임업성에서는 통나무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킬 목표 하에 능력있는 일꾼을 여러 생산단위에 내려보내어 그들이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면서 필요한 대책들을 적극 세워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추진함.
- 계획수행단위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난해 가을부터 겨울철통나무생산을 위한 림지를 바로 정하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정초부터 높은 성과를 이룩함.
- 벽동림산사업소의 통나무생산자들은 통쏘이를 비롯한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매달 높은 실적을 기록함. 동창림산사업소의 노동자들은 채벌조건이 좋은 겨울철에 류벌원천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 앞선 나무베기방법을 받아드리며 산지통나무생산에서 놀라운 혁신을 창조함.
- 평안남도임업관리국 아래 북창과 덕련, 덕천갱목생산사업소의 일꾼, 노동자도 통나무생산을 늘림. 강원도임업관리국 아래 통천갱목생산사업소와 함경북도리업관리국 아래 수성제재공장에서도 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함.

○ 겨울철통나무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로동신문 11.25)

- 평안북도임업관리국 아래 임산사업소에서 겨울철통나무 생산준비를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 관리국의 당일군들은 임산사업소를 맡고 내려가 당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겨울철통나무 생산준비를 잘하도록 일꾼, 종업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겨울철통나무 생산준비에서는 벽동임산사업소가 앞서나가고 있음. 사업소에서는 성하작업소의 산지합숙을 본보기로 꾸려놓고 모든 작업소에 일반화하면서 겨울철통나무 생산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태천임산사업소, 대관산림개조사업소, 운산산림개조사업소에서도 유리한 채벌조건을

갖춘데 기초하여 산지합숙건설을 비롯한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음.

▢ 나무심기

○ 농근맹일꾼과 농근맹원들 나무심기 진행 (로동신문 11.17)

-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서 16일 각지 농근맹일꾼, 농근맹원들이 나무심기를 함.
- 농근맹중앙위원회와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의 20여개 시(구역), 군농근맹일꾼, 농근맹원들은 11종에 9,000여 그루의 나무와 6종에 1만 2,500여 개의 꽃뿌리를 마련함.
- 이날 농근맹일꾼과 농근맹원들은 4종에 1만 7,500여 점의 물자도 넘겨줌.

5. 기타 작물

▢ 과수

○ 북청군에 현대적인 과수원이 건설된다 (로동신문 11.22)

- 북청군에서 수천 정보의 현대적인 과수원건설이 시작되었음.
- 과수련합총회사 과수설계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능력있는 설계가들이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방대한 건설의 총계획도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음.
- 북청군을 현대화된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건설은 수천정보의 토지정리와 수십만대의 콘크리트지대세우기, 도로와 물길건설, 하천정리를 해야 하는 매우 방대한 공사로서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됨.
-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에서 과수원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군에서는 수백정보의 토지정리와 도로, 물길을 건설하고 유기질비료실어내기, 전호식구뎅이파기를 비롯한 키낮은사과나무심기준비를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남새

○ 규모가 큰 새 남새온실 건설 (로동신문 11.30)

- 남포시에서 4만 수천㎡의 부지에 갖가지 남새를 생산할 수 있는 15개의 온실호동과 새 건물, 휴게실, 창고, 양수장과 차고 등이 갖추어져 있는 남새온실을 건설하였음.
- 현재 모든 호동에서는 오이와 토마토, 고추, 가지를 비롯한 갖가지 남새가 자라고 있음.
- 지금 겨울철에도 시민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 파종한 여러 가지 남새에 대한 비배관리와 온도보장에 힘쓰고 있음.

6. 기타 보도 동향

▢ 살림집

○ 10여 동의 살림집 및 공공건물외부미장과 타일붙이기를 끝냈다 (로동신문 11.21)

- 11월 20일 현재 만수대지구건설에 참가한 10여 개 시공단위들이 맡은 고층 및 초고층살림집과 공공건물의 외부미장 및 타일붙이기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함.
- 건설지휘부의 지휘밑에 여러 시공단위에서는 현장방송수단과 직관선동을 배합한 화선식경제선동으로 건설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미장 및 타일붙이기를 비롯한 마감공사를 연이어 끝내고 있음.
- 조선인민군 김창섭소속부대의 지휘관, 전투원들은 45층까지의 지상골조공사를 단숨에 추진한 성과에 토대하여 다음 공정도 입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음.
- 11월 20일 현재 만수대지구 살림집들의 외부미장은 80%, 내부미장실적은 60%에 이르렀으며 각종 문틀들이기와 수지창설치, 내외부 타일붙이기와 급배수공사를 비롯한 마감공사 실적도 나날이 높아져 거리의 모습이 완연히 드러나고 있음.

▢ 현지지도

○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 (로동신문 11.28)

- 김정일은 김정은, 리영호, 김경희, 장성택, 김정각, 김경옥, 한광상, 김원홍, 박재경, 현철해 동지와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 함.
- 선군시대 본보기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처럼 과일군을 새롭게 일신시키기 위하여 군안의 당원, 근로자들은 많은 면적에 달하는 과수원의 토지정리를 진행하고 새 품종의 과일나무심기를 비롯한 현대화공사에서 성과를 거둠.
- 과일군은 해발높이와 해비침률, 적산온도, 토양상태 등 자연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현지지도 함.